

건강 칼럼

###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 지속기간은?

**치**아를 상실했을 때 치아 기능을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임플란트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술 이후 나타나는 통증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 회복 과정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플란트 수술 후 일정 기간의 통증이나 불편감은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수술 범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인공 치근(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턱뼈에 식립한 뒤 보철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잇몸과 뼈 조직에 외과적 처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술 직후 통증, 부기, 약한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수술 이후 일정 기간 점차 완화되는 경향이 보고된다. 수술 후 2~3일 사이에 불편감이



이 현 섭

서울센텀치과 대표원장

비교적 두드러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과 붓기가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수술 범위가 넓거나 뼈 이식이 함께 시행된 경우에는 회복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반면 통증이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거나 오히려 강해지는 경우에는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붓기가 오래 지속되거나 고열, 발열,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염증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수술 부위 주변 감각 이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입을 벌리기 어려운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통증의 단순한 존재 여부보다는 변화 양상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의 강도, 지속 기간, 동반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회복 과정인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임플란트 수술 이후 나타나는 통증은 조직 치유 과정과 관련된 생리

적 반응과 연관될 수 있다. 외과적 처치 이후에는 염증 반응(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한 신체 반응)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기나 압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는 경향이 보고된다.

또한 구강 위생 상태와 생활 습관 등도 회복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요소로 언급된다. 흡연, 만성 질환 여부, 구강 관리 상태 등은 잇몸 조직과 뼈의 안정화 과정과 관련성이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술 이후 일정 기간 구강 상태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임플란트 수술 후 나타나는 증상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통증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독자제언

### 설레는 봄나들이 길, 음주운전은 '비극의 시작'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행락철이 다가왔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명소와 축제장에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이 시기에 어김없이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 사고이다. 행락철에는 평소보다 긴장이 풀리기

쉽다. 야외에서 기분을 내며 마신 '한잔의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이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단일한 생각이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된다. 특히 축제장 인근이나 유원지 도로는 보행자가 많아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봄철은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사고 발생률이

급증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 없는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한 가정의 송두리째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절대

적인 의무여야 한다. 나들이의 진정한 완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가족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때, 비로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봄날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규재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장

### 경찰관이 전하는 생활 속 '노쇼(No-Show)' 사기 예방법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가장 허탈하게 만드는 범죄 중 하나는 단연 '노쇼(No-Show) 사기'다.

과거에는 단순히 음식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는 영업방해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간절할 마음을 이용한 '노쇼(No-Show) 사기'가 지능적인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고창경찰서 관내에서도 한 자영업자로부터 다급한 상담 전화를 받았다. 최근 며칠 사이 번호와 이름이 다른 여러 명으로부터 "고객의 일을 맡기고 싶다"는 전화가 10건 가까이 쏟아졌다는 내용이었다. 얼핏 보기엔 사업 변경의 기회 같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접하는 경찰관의 눈에는 명백한 '사기 범죄의 전조'로 보여 노쇼(No-Show) 사기를 예방한 사

례도 있다. 지구대 경찰관은 상담을 요청한 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비대면 유선 예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뢰인을 직접 만나 대면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착수 전 일정 금액의 예약금을 직접 받는 절차를 거치십시오." 범죄자들은 소상공인들의 절실함을 파고든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예

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방패는 우리 스스로가 원칙을 지키는 '철저한 확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맘 홀려 일하는 우리 이웃들이 사기 범죄로 눈물짓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규재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장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사설

### 노벨문학상 기념 시화전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1주년 전국 유명 시인 120인 시화전'이 지난 7일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층 전시장에서 막을 올렸다.

노벨문학상수상기념 시화협회(회장 추원호)가 주관하고 조선 후기 서예가 이삼만 선생 선안회가 후원한 이번 전시는 14일까지 이어졌다.

이번 전시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인 120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화전이다. 시의 언어와 서예의 선, 그리고 미술적 감각이 어우러진 융합 예술의 장으로 마련됐다.

전시장에는 서예가 제방 추원호의 서체로 제작된 족자 작품 60점과 액자 작품 60점 등 총 120점의 시화 작품이 걸려 관심을 모았다.

시인의 언어는 서예의 필획을 통해 또 다른 예술로 태어나고, 작품마다 담긴 시의 정서와 여백의 미

가 조화를 이루며 깊은 여운을 전한다.

시를 읽고 서체를 바라보는 순간, 관람객들은 문학과 서예가 만나서 새로운 감상의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개막식이 열린 이날 오후 2시에는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플루트 연주자 윤수연의 특별 연주가 더해지며 전시장의 분위기를 한층 올렸다.

여기에 AI 지도감사자 영상이 더해져 전문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특이한 춤과 함께 열려 예술과 첨단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개막식에는 전북일보 윤성정 사장, 전북사인협회 이형구 회장, 화산중학교 심의두 이사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승필 대표, 우범기 전주시장 등과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 다섯번째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사진전

'두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제5회 사진전시회가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려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우리가 바라본, 세상'이란 제목의 전시회는 발달장애인의 사진전이다. 모두 2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카메라를 손에 잡았다.

당시 주위에서는 궁금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세상을 좋아할까, 무엇을 찍고 싶을까가 커다란 관심사였다.

이렇게 시작한 사진교실이 벌써 다섯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올해도 전북 도내 여가지를 걸으며 소중히 순간들을 사진기에 담았다. 이 사진전은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전시가 아니다. 한 달에 한 번

카메라를 손에 쥐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 쌓아온 기록이다.

두드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사진교실은 일 년에 열두 번 세계를 따라 이어져 왔다. 사진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보는 일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 세상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일뿐이다.

한편, 두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 2월 전주시로부터 장애인 주간활동센터로 지정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4년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 품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사내 · 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